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 및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계 선 자(숙명여대 교수) · 전 미 영(숙명여대 석사)
이 민 주(숙명여대 석사과정) · 박 다 정(숙명여대 석사과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과 자원절약행동의 수행정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응집력, 소비자사회화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녹색 성장시대 초등학생들이 자원 절약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 5월23일 부터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최종 500부의 자료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과소비성향과 자원절약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과소비성향 2.65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자원 절약행동 3.61점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과소비성향은 학년, 용돈액수, 가계소득이 높고, 용돈액수가 많은 집단이, 과소비성향이 더 높았다.

셋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은 용돈의 액수가 적고, 사회화과정과 가족 응집력이 높고, 민주형인 부모의 양육태도일수록 더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용돈 액수, 가계소득, 사회화과정, 가족응집력, 부모의 양육태도, 과소비성향 모두가 자원 절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연구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자원절약 행동의 경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한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특히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같은 외형적인 부분 보다는 가족 간의 응집력과, 양육태도와 같은 내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집단은 가정으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화과정, 가족 응집력, 과소비성향 변인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만 분석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외의 사회심리적변인 등 다양한 변인과 저학년 대상도 확대하여 어려서부터 자원 절약을 생활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